



# 9월의

# 육계전망



**장민기**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버들농원 대표)

## 개황

중복이후 8월말까지도 계속 찌는듯한 폭염이었다. 농장의 닭들은 더위에 질식되어 여러 육계농장에서 폐사를 많이 냈다고 한다. 이 지경이 되면 닭의 정상 발육은 기대할 수가 없었고 육계값은 중복 이후 급상승하여 8월말에 와서까지도 서울지역기준 1,100 원대를 상회하였고 1.7kg 이상의 닭들은 품귀상태에 이른 것이다.

## 분석

1) 7월의 육계전기사료는 84년 7월대비 약 15%정도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9월의 날씨가 정상기온을 되찾을 때 소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닭의 발육속도는 빨라져 생산의 증가 현상과 소비는 감퇴의 역작용이 이루어질 것 같다.

2) 다만 대량수요처인 군납용 계육의 비축분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육계가격이 850 원대에 이르게 되면 군납을 하는 업자들의 비축작업이 시작될 것이므로 닭값이 대단히 폭락하는 현상

표 1. 82~85 사료, 병아리생산수, 생산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2	10.0	17.4	5,519	10,200	1,177
	83	18.8	29.4	8,659	12,612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3	26.8	11,500	14,596	1,115
2	82	12.6	16.6	6,976	11,404	1,120
	83	20.8	31.4	10,284	13,070	1,047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8.8	28.3	12,000	14,519	1,050
3	82	18.8	22.8	10,433	12,918	1,213
	83	27.3	41.5	13,130	13,880	739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0	31.5	13,000	15,164	750
4	82	23.2	31.0	14,024	13,966	1,213
	83	28.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353
	85	22.9	33.8	14,500	15,719	870
5	82	26.0	36.0	14,420	14,775	1,026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1,048
	85	25.2	35.6	15,500	16,500	870

6	82	28.5	45.0	15,807	14,923	818
	83	32.1	48.4	15,420	14,239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7.7	39.5	16,500	17,000	870
7	82	26.4	49.3	14,661	13,822	923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7.1	42.0	15,000	14,500	950
8	82	22.3	40.4	12,394	12,734	902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추)25.6	(추)32.0	(추)14,000	13,000	1,100
9	82	21.4	44.3	11,867	11,828	816
	83	23.9	48.9	13,340	11,469	802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추)23.5	(추)35.0	(추)13,000	12,500	
10	82	17.0	31.3	9,462	11,335	862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13,500	
11	82	18.1	30.8	10,031	11,541	928
	83	20.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15,000	
12	82	20.7	36.3	11,520	12,077	1,040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계	82	245.0	401.2	137,114	151,523	977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177,000	

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추석을 겨냥해서 다량의 병아리가 집중 입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추석에 계육이 다 팔리지 않아 농장에 닭이 체화되기 시작하면 육계가격은 급하향곡선을 타게 되어 잠시 800 원대 이하의 가격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4) 추석닭 출하분의 병아리 입식이 끝난 후에는 입추열이 잠시 가라앉는 듯 하다가 곧바로 다시 병아리 입추 과열상태가 되어있는 듯하여 연중 가장 닭고기를 덜먹는 시기인 10월 중순 이후 12월 중순까지의 닭값은 심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한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국내의 소값이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듯하고 계육과 가장 결합적으로 대체소비 영향을 가지는 돼지고기 값이 연말까지는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계육의 소비자를 타육류쪽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에 계육의 소비감퇴는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8월의 육계후기사료가 격감된 사실에 대하여 자칫 통계분석에 있어 오판하기 십상인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사료생산추이를 분석 검토하여 늦가을에 출하되는 닭 병아리 입식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 비교

사료	월 순 년도	4			5			6			7			8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 기	84	4,169	3,536	3,303	3,855	3,448	3,431	3,404	3,409	3,853	3,094	2,997	2,977	2,413	2,393	3,022
	85	2,855	2,748	2,523	3,360	2,859	3,295	3,066	3,385	3,518	3,332	3,071	3,231	2,671	2,819	
후 기	84	3,376	3,047	3,770	4,594	4,291	5,705	4,933	5,099	5,313	4,663	4,993	5,015	3,580	2,673	3,874
	85	2,813	3,282	3,285	3,060	3,385	3,912	3,182	3,451	4,264	3,962	3,984	4,258	2,890	2,454	